

학교소식

- 1 현장 중심 수업 소개
- 2 행사/학술/연구
-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4 교수동정
- 5 석·박사과정
-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 7 시민정원사

동문소식

- 8 동창회
- 9 동문동정
- 10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특별 소식 |故 최막중 교수 별세 및 영결식



발행인 홍중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9년 6월 30일 담당교수 김경민

학과조교 강태석 기재홍 노초원 윤병석 허윤상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김 배 학생기자 김진석 유문영 E-Design 흑석동작업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08826 서울 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gses.snu.ac.kr/>

학교소식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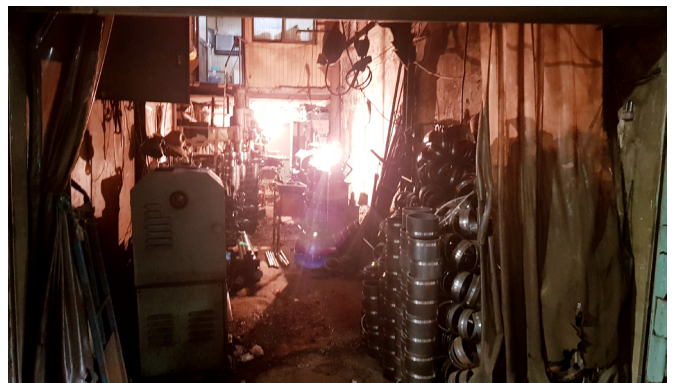
1.1 도시성장관리 :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시장 일원

환경계획학과 이영성 교수는 도시성장관리 수업의 일환으로 2019년 4월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을 답사하였다. 도시성장관리 기법 중 낙후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도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 위함이다.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은 최근 서울시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문래동 예술창작촌과 경인로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영등포 뉴타운 지역 등 세 곳을 둘러보았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문래동 예술창작촌으로 이곳은 원래 1930년대부터 공장지대였지만,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된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2000년대 초반부터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예술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 카페와 식당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철공소와 예술공장, 카페들이 낯설게 어울려있는 공간이 되었다.

경인로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곳곳에 철공소들이 입지해 있는 공장지대였다. 이곳 역시 팬시한 카페와 식당들이 눈에 띄었다. 공장지대 바로 옆에는 아직까지 집창촌이 남아있다.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고, 2023년까지 복합문화시설과 청년희망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영등포 뉴타운으로 재개발 예정인 영등포시장 일대였다. 영등포 뉴타운은 2003년에 지정된 이후, 2017년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했다. 앞으로 뉴타운이 완성되면 그동안 공장지대 이미지가 강했던 영등포구 준공업 지역 일대는 신혼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 대기관리, 환경생태학 : 대기질 측정 답사

정수종 교수의 대기관리와 환경생태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2019년 5월 14일 대기질 측정을 위한 현장 답사에 참가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국립산림과학원에 집결하였으며 4개 조로 나뉘어, 청량리역 교통섬, 송인원, 홍릉숲, 한신아파트 녹지 등 총 네 곳의 대기질을 측정하였다. 4개 조 모두 각 지점을 돌며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였다.

미세먼지 측정은 DustMate라는 기기를 이용하였으며, 각 지점에서 2시간 동안 측정하였고, 이후 측정 지점별 미세먼지 농도 특징을 해석하기 위해 조별로 지점별 특징 (수종, 수고, 불투수율 등)을 파악하였다. 한신아파트 녹지는 아파트 단지 내의 자투리 땅이며 하층식생이 없다는 특징이 있었고, 주요 수종은 벚나무, 단풍나무, 층층나무, 느티나무이다. 청량리 교통섬은 조경 목적의 하층 식생이 존재하며 주요 수종은 소나무였다. 영희원은 하층 식생이 거의 없고 수관 층이 높으며 제초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주요 수종은 참나무 우점의 활엽수림이었다. 마지막으로 본원은 다양한 식생이 밀식하며 시설 설치 작업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주요 수종은 활엽수림이었다.

이후 국립산림과학원 뒤 천장산에 설치된 미스트 발생기인 GRIMM EDM 164 측정기기를 살펴보았다. GRIMM EDM 164는 높이에 따라 미스트를 뿌리고 그 높이에 따른 미세먼지 질량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높이에 따른 미세먼지 질량 농도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식사 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회의실에서 조별로 오전에 측정한 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하였다. 도시숲의 영향을 보기 위해 4개 지점을 선정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도시숲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본원과 제초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영희원에서 peak 값이 나타났다. 향후 도시숲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측정 실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Landscape History : 서울경동약령시장 답사

환경조경학과 Wybe Kuitert 교수가 담당하는 Landscape History 과목은 계절, 문화, 사회구조,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도시 경관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아보는 수업이다. 이번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 야외로 나가 직접 다양한 식물들의 샘플을 채취하여 식물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이고 폭넓은 체험을 위해 2019년 5월 9일 서울경동약령시장 일대를 답사하였다.

서울경동약령시장은 1960년대 생긴 우리나라 최대의 한약재 시장으로, 약 800여 개의 한약재 매장들이 들어서 있으며 우리나라 한약재의 70%가 유통된다. 동대문구에서는 이러한 경동약령시장을 단순한 유통시장이 아닌 고유의 특성을 살린 관광지의 기능과 함께, 한의학에 대한 홍보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예로 현대화된 약재상, 호객행위 없는 시장 거리, 약재의 원산지 표기 등 약령시장의 전통을 지키면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동대문구는 한의학 및 한약재에 대한 홍보를 위해 한의학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Wybe Kuitert 교수님과 학생들은 약령시장에서 직접 약재들을 구매한 후 한의약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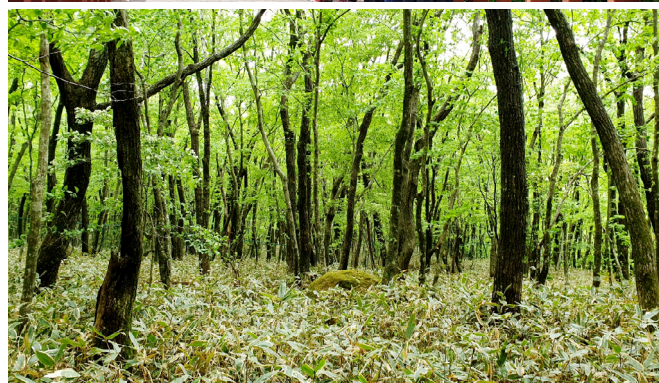
1.4 조경식물소재 : 한라수목원, 한라산 답사

환경조경학과 박종화 명예교수가 담당하는 ‘조경식물소재’는 조경에 필요한 다양한 식물 소재들을 배우고 연구하여 조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이다. 본 수업에서는 중부권에 서식하는 식물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의 식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조경 식물 소재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 5월 18-19일, 이틀간 우리나라의 최남부, 제주도에 위치하는 한라수목원과 한라산 답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하는 한라수목원은 제주자생식물 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와 도·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해 1993년 조성되었다. 수목원의 면적은 약 220,023㎡이며 해발 167~266m(광이오름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수목원은 평지가 아닌 경사면에 조성되어 1,321종(목본류 530종, 초본류 791종)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박종화 교수는 중부권에 선 보기 힘든 많은 식물들을 특징적으로 설명하였는데, 특히 많은 교목·아교목류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라산은 1966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방문 당일 아쉽게도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어 목표했던 정상까지 오르지 못했지만 산 아래부터 산허리인 윗세오름까지의 식생 변화를 관찰하여, 식물들이 척박한 기후에 어떻게 적응을 하였고 어떤 생태학적 특징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해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중부권의 기후 또한 따뜻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 남부권에만 서식 가능했던 식물재료들도 수도권에서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볼 때 이번 제주도 답사는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다.



1.5 커뮤니티 계획과 설계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와 최재원 강사(독립 큐레이터)가 지도하는 '커뮤니티 계획과 설계'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에 관한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학생들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하는 스튜디오 수업이다. 이번 학기 이루어진 수업에서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17명의 학생들이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였다. 다음은 6개의 팀이 구현한 결과이다.

1) 효창공원 사용법 :

효창공원과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어플리케이션 개발

2) Hyo Chang Running Crew :

독립운동과 마라톤, 효창공원과 손기정 체육공원 달리기

3) 청파동 여행자의 기록 :

대단히 특별하지 않지만 평범하지도 않은 곳.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4) 용문전통시장, 그곳의 기억을 나누다 :

사라지는 전통시장의 기억과 삶 아카이브 전시

5) 서계/청파 패션브랜드 론칭스토리 :

지역 봉제 장인들과 함께 하는 패션브랜드 창업

6) 효창공원 산책 :

효창공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사진 작업

수업의 결과물은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효창, 공공의 움직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었다. 본 전시는 서울시와 국가보훈처가 주최하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무용원 창작과, 홍소연, 서울시체육회가 참여하였다.

커뮤니티 계획과 설계는 물리적 공간의 기능과 용도의 관점을 넘어서 공간의 콘텐츠, 공간의 주체가 될 사람들의 특성과 잠재적 역량의 발굴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다. 본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공공 프로젝트가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체험하고, 실무적 방법론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솔루션 제안은 도시재생 사업부터 효창공원 일대의 골목길 재생사업에 이르기까지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창

공공의 움직임

Hyochang, Public Running

<효창, 공공의 움직임 Hyochang, Public Running> 뚝은 시간과 공간의 무개념으로 밀려 떨어진 어떤 상징이 아닌, 서울의 한가운데에서 걷고, 바라보고, 말을 건네며 만난 효창의 움직임을 기록한다.

과거의 송결을 깨닫고 보고, 지금 효창의 움직임을 느끼며, 미래의 효창공원을 둘러싼 사람과 공간과 자연의 모습을 그려본다.

2019. 6. 18. ~ 25.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

주최: 서울시, 국가보훈처

주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무용원 창작과, 홍소연, 서울시체육회

주최: 시혜성, 양철모, 장자혜, 황영우, 유나경, 조경진, 최재원, 조경환

주최: 엑스세이드

행사/학술/연구

2.1 환경대학원 행사

1) 정원가꾸기 식목행사

지난 4월 3일 환경대학원 건물 옥상에서 '2019 정원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 정원가꾸기 행사에는 특별히 오세정 총장을 포함한 총장단이 방문하여 기념 식수를 하였으며 환경대학원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옥상정원 보식과 정리를 하였다.

올해는 핑크물리, 억새 모닝라이트 등 약 10종의 식물을 심었으며 잔디보강을 실시하였다. 함께 진행된 제8회 사진전에서는 환경조경학과 이성구 학생(석사 1기)의 '또 다른 지평선'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2019 스승의날 및 어울림 체육대회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회 주관 하에 모든 학생이 교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많은 학생들과 RA들은 교수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스승의 날 노래를 함께 불렀다. 스승의 날 행사 이후에는 환경대학원 모든 전공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학생회가 기획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2.2 BK21 Plus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

1) 제41차 콜로키움: Heat, Human Capital,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2019년 4월 1일 UCLA 대학교 Public Health & Public Policy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박지성 교수가 “열, 인적 자원 및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는 ‘교육과 열’, ‘노동 생산성과 열’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첫 번째 교육과 열에 관하여 그는 ‘누적 열 노출이 학습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메커니즘은 무엇이고, 온도에 대한 방어적 투자는 얼마나 효과적인가?’, ‘성취에 대한 격차에 있어서 물리적인 학습환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의 질문과 관련하여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2천만 건 이상의 미국 PSAT 시험(1996-2014)의 분석 결과, 고온 상황에서의 학교 수업은 학습을 방해하지만, 에어컨 및 기타 고온에 대한 방어적 투자는 이러한 고온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두 번째 노동생산성과 열에 관하여 미국 우편번호 수준(zip code-level)의 근로자 급여 및 부상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 더운 날은 재택 급여(take-home pay)를 줄이고 작업장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열에 노출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열에

대한 영향을 모두 합치면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노동생산에서의 열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열(extreme heat) 관리 복지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2) 제42차 콜로키움: 기후변화와 적응(adaptation)

BK21 환경대학원 기후변화사업팀에서는 2019년 3월 29일,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를 초청하여 ‘기후변화와 적응’에 대하여 콜로키움을 가졌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결정의 핵심 리더를 만나고자 하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강연 시작 전부터 만석이였다.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는 2019년 현재 기후변화를 해위협과 동일시 할 정도로 인류의 존망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하였고, 특히 종말 시계(Doomsday Clock)가 자정 2분 전으로 설정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행위로 발생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이기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에너지원의 변화(나무, 석탄, 석유·가스)가 삶과 기후에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이 굉장히 광범위한 만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하기도 하였다. 과학적(원인 규명), 정책적(투자액회수기간의



장기화), 국제적(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입장 차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복잡성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무겁고 광범위하면서도 논쟁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에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비교하여 시간·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고, 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체제라고 볼 수 있다. 보편성·포괄성, 형평성과 진정성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는 이와 관련한 협상

실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2018년 10월 송도에서 진행되었던 IPCC 1.5 특별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특별보고서에서 '파리협정'을 뺄 것을 요구하였고,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포의 메시지(~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처할 것)가 아니라 감축 및 적응 노력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결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 기존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COP24 총회는 국내언론이 비판하는 것처럼 '알맹이 없는 협의'가 아니라 세부이행규칙을 대부분 합의하여 신기후체제 출범을 가시화한 것이자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선택은 자유롭지만, 선택에 관한 결과로부터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노력과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환경사회학회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 공동 주관 토론회: 생태와 생계: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

BK21 환경대학원 기후변화사업팀에서는 2019년 4월 19일~20일, 환경사회학회와 함께 '생태와 생계: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을 주제로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기조 강연, 기획세션, 일반세션과 BK21+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BK21+ 세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위한 전환 방법과 전환의 방향에 대한 학술적, 생산적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정필과 권승문은 탈(脫)석탄 관련 정의로운 전환의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과 충남의 탈(脫)석탄 정책과 담론을 검토해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과 프로그램 구상에 필요한 토론을 제안했다. 박상은은 고(故) 김용균 사망 이후 2019년 1월 24일에 발표된 태안화력인권실태조사보고서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진행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료 환경 설비 업무 종사 노동자 면접 조사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했다. 이상현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분석으로 문제제기와 쟁점 분석을 시도해 논쟁의 장을 열기 위한 시도를 했다. 홍덕화, 윤순진, 박진영, 박선아, 김지혜는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쟁점을 분석하여 유가보조금의 축소·폐지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을 탐색했다.

4월 20일 토요일에는 공주대학교 유승광 객원교수와 함께 서천의 길산마을, 판교마을 그리고 장항 일대를 둘러보며 지역사회와 경제, 환경의 관계, 지역 마을 살리기에 대한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3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전공 특강 1: 서울시 주택정책의 성찰과 전망

환경대학원은 2019년 4월 22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초청하여 “서울시 주택정책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컬홀에서 특강을 개최하였다. 먼저 진 부시장은 서울시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주택이 어떻게 공급되어 왔는지를 설명하였다. 서울시는 1950년대 100만호 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주택이 공급되었으며, 매년 20~30만 명씩 서울로 인구가 모여드는 상황에서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로 단지형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여의도, 압구정, 잠실, 1980~1990년대에는 목동 등 서울 외곽지역 택지개발사업 및 수도권 제1기 신도시개발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27만 1,253호(서울시 주택수의 7.4%)를 확보한 상태라고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노후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뉴타운정책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어서 진 부시장은 최근 서울시의 주거 현황에 대하여 고소득층의 다주택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자가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2년간 평균 주택가격이 36.8% 상승하여 서울시 소득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RIR)이 약 30%에 이르게 되어서, 매년 주택문제로 서울 전출 인구가 약 57만 명이고, 그중 2030세대가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여러 해외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임대주택 24만호와 8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 후에는 전상인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성, 김정민, 장수은, 김세훈 교수가 참여하여 토론 시간을 가졌다.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다.



2) 전공 특강 2: 도시 및 지역계획에 대한 외국의 원조

본 특강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Dr. von Rabenau 교수가 '도시 및 지역계획에 대한 외국의 원조'라는 제목으로, 예멘의 역사보존지구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주택 정책 수립, 북한의 두만강 지역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며 얻은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Dr. von Rabenau 교수는 크게 세 가지를 전달하였다. 첫째, 한 곳의 사업과 접근을 다른 곳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원조 프로그램으로 선택된 곳은 수원국이나 수혜국 모두 많은 관심과 정성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선택된 지역 역시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지만, 그 사업 모델을 다른 곳에 적용하는 경우 이런 요소들이 결여되어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일례로, 해외 원조 프로젝트가 종료한 후 성과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둘째, 기술의 차이로 인해 원조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도국은 자국의 기업을 활용하려고 하지만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개도국의 낮은 기술력의 노동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원국이 지나치게 높은 기술 수준을 적용하여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셋째, 수혜국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관리와 성과 확산에 큰 관심이 없다든지, 자기성찰적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장기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SES Special Lecture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특별강연

Foreign Aid

to Regional/ Urban Planning

- Lessons from Experience -

도시 및 지역계획에 대한 외국의 원조

: 두만강 개발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

Monday, May 20, 3pm | 5월 20일 (월) 오후 3시

GSES Room #305 | 환경대학원 305호



Dr. Burkhard von Rabenau

Dr. von Rabenau is Professor Emeritus of City and Regional Planning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OSU), and a consultant with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He taught for 35 years at OSU, while working during breaks as a consultant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frica, Asia, Eastern Europe, the Middle East and South America. His interests are in urban and housing economics, municipal and project finance,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He consulted with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in North Korea in 1997-1998.

그는 도시 및 지역계획에 대한 해외 원조를 계획할 때 이런 교훈들을 잘 새겨서 진행해야 하며, 연구자이자 컨설턴트로서 가장 큰 보람은 사업을 통해 현지 사업 담당자가 성장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의 자리에 올라 올바른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 언급하였다.



2.4 교통학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제49회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Retail 4.0 시대의 도시물류체계 발전방향

2019년 3월 22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의 주최로 제49회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임현우 교수의 'Retail 4.0시대 도시물류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유통·물류의 트렌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채널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cross-channel의 형태를 가지는 옴니채널 유통(Retail 4.0)이라고 하였다. 성공적인 옴니채널 유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객 주문 및 재고 정보에 대한 가시성이 모든 판매 채널에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와 물류시스템과도 연계, 통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임교수는 공유경제 시대에 창고 공간도 플랫폼화 하여 공유할 수 있다면 도심의 물류문제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시간대별 도로교통 상황을 고려한 도심 식자재 배송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심 프랜차이즈 점포 배송 개선 사례를 설명하였다. 편의점, 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업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도심지역에 식자재 배송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취급하는 식자재는 짧은 유통기한과 다빈도 배송을 요구하기 때문에 배송 스케줄 및 추가 경로 설정의 필요성이 크다.

이번 콜로키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시물류체계에 대한 의미있는 의견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Retail 4.0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5 환경조경학과 행사/학술/연구

1) 도시조경계획연구실(ULPD) 특강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 연구실인 도시조경계획연구실(Urban Landscape Planning Design Lab)에서 2019년 5월 31일, 'Hybrid Space'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본 특강은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건축·도시·조경 디자인 그룹인 <Hybrid Lab>의 Elizabeth Sikiaridi 교수와 Frans Johan Vogelaar 교수의 강연과 학생들과의 토론으로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강연에서는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진행해왔던 Hybrid Lab의 작업과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Homboldt Project, Taking Food to Next Level 등과 다학제간의

융합과 소통으로 이루어 낸 Deep Space(re-signifying Valles de los Caiodos), INbetweenSTITUTE 등의 작업은 학생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프로젝트를 기획과 구현 과정,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본 특강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오픈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도시조경계획연구실(ULPD)에서 진행하고 있는 DMZ 연구의 일환이었다. 도시조경계획연구실은 현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고 있는 DMZ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DMZ와 도시 조경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6 석박사과정 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 활동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김승화**(박사수료)와 **故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제23권에 "The causal structure of land finance, commercial housing, and social housing in China"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토지재정과 상품주택 및 공공주택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신지연**(박사수료)은 2019년 4월 24~27일 L.A. 에서 열린 UAA(Urban Affairs Association) 학술대회에서 "Does Place Attachment Lead to Positive Citizen Behavior?"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애착심과 주거안정성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자가 여부와 거주 년도 변수를 사용한 주거안정성은 지역애착심을 통해 시민참여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최하니**(석사과정생)은 2019년 4월 3-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19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AAG) 서 "Imagining Culture in Seoul via Airbnb Tourism"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에어비앤비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고, 에어비앤비의 유입요인으로 지역 고유의성에 주목하여, 지역의 고유성이라는 관광 추동 요인이 에어비앤비의 가격과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김지태, 손원익, 신희영, 김나현**(이상 박사과정)과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Energy Policy 127(2019) 425-437에 "Long-term energy strategy scenarios for South Korea: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nergy system"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나리오를 개발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 에너지 대안 계획 시스템(LEAP) 모델을 활용하여 각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도출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차지연**(박사과정)과 **오능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JGR Biogeoscience 124권 3호에 "The Effects of Tree Species on Soil Organic Carbon Content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595개의 나무 및 토양 자료를 이용하여 수종별로 토양의 탄소 함량을 계산해 내었다. 그 결과 침엽수와 활엽수 간에 토양 탄소 저장량에 차이가 있고 토양층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해당 결과는 토양과 산림에 대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기후 변화 시대에 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관리에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관리 전공 강소연**(박사과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 Congress 2019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anada의 환경분과(Environmental Studies Association) 내 'Global Environment Case Studies B: Climate Action and Transition' 세션에서 "For Whom is Garuda over the Java sea made? - Strayed Climate Justice in Jakarta"이라는 제목으로 6월 5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자카르타 내에서 가루다 프로젝트가 초래하고 있는 기후불의적 상황과 사업에 대항하는 담론에 기후정의 담론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김우창**(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9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The Inaugural Congress of East Asian Sociological Association의 Environmental Sociology 2 세션에서 "Transition from a space-based to value-based community: Lessons from 765kV transmission tower

construction conflicts in Miryang, Sou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3월 8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전통적인 지역기반의 공동체를 해체시켰지만, 역설적으로 가치기반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환경관리 전공 박선아**(박사과정)은 2019년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열린 The 11th PKU-SNU Environmental Workshop on Sustainable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management에서 “Designing participatory planning for Local SDG indicators: case study on roundtables in Korea”라는 제목으로 1월 4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경상남도 시·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원탁회의에서 일반인 참가자들의 의견이 토론과 숙의에 따라 변해가는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박종문**(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9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The Inaugural Congress of East Asian Sociological Association의 Environmental Sociology 1: Climate Change Policy and Energy Policy in East Asia 세션에서 “Where are Energy Cooperatives in South Korea?: Their Growth Trends and Challenges”이라는 제목으로 3월 8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에너지협동조합의 최근 성장 추세와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이슈와 과제, 향후 에너지협동조합의 위상과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소윤미**(박사과정)는 2019년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열린 The 11th PKU-SNU Environmental Workshop on Sustainable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management에서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orecasting based on weather forecast data using deep learning”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파이썬의 텐서플로우 RNN 딥러닝 모델을 포함, 머신러닝의 다양한 모델을 이용하여 기후요소와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주일간의 전력 발전량을 예측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장리아**(박사과정)와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9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한 Society of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 (SETAC) 학회에서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nfluences on the exposure level of VOCs and PCDDs/DFs in soil and water of Seoul,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인자의 변화에 따른 토양과 수체의 오염도 변화와 그 변화의 원인을 평가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박채린**(석사과정)은 6월 3일부터 5일까지 일본 삿포로 홋카이도 대학에서 개최된 “The 15th International Workshop on Greenhouse Gas Measurements from Space (IWGGMS-15)”에 참석하여 “Carbon Dioxide Enhancement over Seoul from Space and Surface Measurements”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위성 및 지상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경향성, 계절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배경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의 이산화탄소 도시 증가 효과 정도를 정량화하였다. 또한 도심 연구에 있어 고해상도 이산화탄소 관측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서울 도심 이산화탄소 지상 관측망을 최초로 구축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박하영**(석사과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Hokkaido University, Sapporo에서 개최된 “The 15th International Workshop on Greenhouse Gas Measurements from Space (IWGGMS-15)”에 참석하여 “Observing Patterns of Greenhouse Gases and Pollutants Across Cities Using Satellite Data”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의 상관성을 전지구규모와 지역규모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 물질은 두 규모에서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고 도시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더 정확한 시공간적 인공위성 데이터와 지상관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박하영**(석사과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Nakano Sunplaza, Tokyo에서 개최된 “The 15th Meeting of the Atmospheric Composition Virtual Constellation (AC-VC-15)”에 참석하여 “Evalu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Urban CO2 and Air Quality from Ground to Space”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에서 발생한 인위적 이산화탄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인공위성 자료와 지상관측 자료로 분석하였다. 서울과 같은 지역적 규모에서는 이산화탄소와 CO, NO2, PM2.5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CO2를 잘 추적하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을 보여주었다.
- **협동과정 조경학 이승현**(박사수료)은 2019년 6월 26 ~ 28일에 중국 남경대학교에서 열린 Inter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Society 국제 컨퍼런스에서 “Where are the most damaging places to people under extreme heat events? - Urban heat risk assessment considering place of incidents and daytime population”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했다.
- **협동과정 조경학 장림**(박사수료)은 2019년 5월 26 ~ 27일 북경임업대학교에서 열린 제4회 풍경원림 식물과 인간주거환경건설 포럼에 참가하여 “A Study on Symbolism and Appreciation of Plants in ‘Xianqingouji Zhongzhibu’”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중국 이어가 저술한 한정우기 종식부에 기술되어 있는 식물의 의미와 가치를 밝히고 식물을 활용한 향유 방식에 관한 내용이었다.

2) 국내 학술 활동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정보화정책 제 26권 1호에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사회관계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스마트기기의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스마트기기의 영향력을 사회관계까지 확대시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 **교통학 전공 장재민**과 **이유봉**(이상 박사수료)는 대한교통학회 제 37권 2호에 “해양교통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안전 영향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해양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한 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교통학 전공 장재민**, **한정현**(이상 박사수료), **임동욱**(박사)는 한국도로학회지 제 21권 1호에 “고령화 시대의 택시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택시운전자로 확대하여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 **환경관리 전공 김보람**, **박시내**, **교통학 전공 장재민**, **사범대 환경교육 전공 강진영**(이상 박사과정),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신재생에너지 제15권 1호에 “태양광 사용 후 모듈 적정처리를 위한 전주기 단위비용 추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략적인 태양광 사용 후 모듈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국내 최초로 태양광 사용 후 모듈 처리에 소요되는 전주기 재활용 단위비용을 추정하였다. 더불어 태양광 모듈의 효과적인 재활용시스템 구축 및 제도설계를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환경관리 전공 김지태**(박사과정)와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환경정책 제 27권 제 1호 2019,3: 55-78에 “1기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탄소누출 가능성 분석: 수리적 분석 모형 적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배출거래제 도입 후 국내 산업의 탄소누출 가능성을 수리적 대체모형을 통해 정성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기업들의 생산요소 간 대체 가능성이 낮을수록 최종재 간 이동 가능성이 높을수록 탄소누출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환경관리 전공 이찬희, 사범대 환경교육 전공 안새롬**(이상 박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환경교육 제32권 1호에 “북한의 기후변화 교육: 기후변화 교육의 남북 협력을 위한 탐색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교과서와 북한이탈청년 면접을 통해 북한의 기후변화 교육을 탐색하고,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이 북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남북 교육 협력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김영은**(박사과정)과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도시설계학회의 도시설계 제20권 20호에 “노인들의 천국, 제기동을 통해서 본 노인 여가공간의 융합적 특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일상여가활동과 이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인 여가공간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사회현상에 주목하여 도시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인 여가공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기동을 중심으로 어떠한 노인들이 도시공간을 선택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또 노인들이 선호하는 도시공간 특성은 무엇인지 물리적, 인문사회학적, 경제적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 **협동과정 조경학 양유선**(박사과정)은 한국조경학회 제47권 3호에 “덕수궁 돌담길의 역사문화가로 장소 인식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문화가로이자 도심 속 공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덕수궁 돌담길을 중심으로 방문객들이 인식하는 덕수궁의 장소 이미지와 장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대상지 내 장소 인식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2.7 석·박사과정 학생 수상 내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오다원(석사과정)과 박인권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9년 04월 29일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혼합적 토지이용이 주·야간 인구분포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상권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 시그널 데이터(빅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울의 상권을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에 따라 주간 상권과 야간 상권으로 구분하고, 혼합적 토지이용 및 개별 토지이용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한교통학회 춘계학술대회 (교통학회, 2019) 우수논문상 수상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과 고준호(교수)는 2019년 대한교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통근시간대별 통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환경관리 전공 김다정과 손정훈(이상 석사과정)은 2019년 2월 22일 개최된 한국환경정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각각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김다정이 발표한 논문 “항만 개발 시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의 반영 방안 모색”은 흑산도항 항만 개발 시 작성된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기반으로 환경영향의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정하고자 하였다. 손정훈의 논문 “태양광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는 실제 태양광 발전량자료와 미세먼지 및 여러 기상요소를 분석하여,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기상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환경관리 전공 박채린(석사과정)은 2019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2019 한국기상학회 환경 및 응용기상 분과 봄학술대회에서 “OCO-2 자료를 이용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이산화탄소 도시 증가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으며,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OCO-2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배경지역인 지리산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의 도시 증가 효과를 정량화하였다. 또한 도심 연구에 있어서 위성 자료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향후 도심 연구에 있어 고해상도 자료가 필수적임을 시사하였다.

한국기상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환경관리 전공 여재호(석사과정)는 2019년 4월 21 ~ 23일 개최된 한국기상학회 기후분과 봄학술대회에서 “지면 생태계 모델을 이용한 전 지구 지면 생태계 탄소저장시간의 시·공간적 변동성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으며,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기후 변화로 인한 전 세계의 탄소 순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지면 모델의 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약 30년 동안의 육상 생태계 탄소 저장 시간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탄소 저장 시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전 세계 육상 생태계의 탄소 순환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 탄소 플럭스에 대한 관측이 부족한 현 실정에 탄소 순환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

환경조경학과 김수하, 김민주, 신은혜(이상 석사과정)은 2019년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이 주관하는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BEEKER: 도봉산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공모작에서는 도봉산 버스 환승센터 대장지를 도봉산과 어울리는 낮은 매스의 복합적인 시설을 제안함으로써 우수한 자연환경과 버스, 지하철역과의 수직적, 수평적 연결성을 통한 대상지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2019 Digital Landscape Architecture Conference, Poster Competition 부문 3등

환경조경학과 박재현(석사과정)은 2019년 5월 22~25일 독일 데사우에서 열린 20th Digital Landscape Architecture Conference에 참가하여 “Layered Interactive VR Garden”이라는 제목으로 Poster Competition 부문 3등을 수상하였다. 이 포스터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층위와 계절로 형성된 가상의 정원을 사용자가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하여 새로운 경관을 경험하는 정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서울로 7017 Botany for Change 식물정원 공모전 최우수상

환경조경학과 이가영, 임다섭(이상 석사과정)은 서울시와 클로란(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이 주관하는 서울로 7017 Botany for Change 식물정원 공모전에서 ‘초속정원’이라는 정원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정원은 서울로 7017 퇴계로 교통섬 부지에 조성되었으며, '풀의 속도로 걷는다'를 주제로 도시의 사람들에게 자연의 속도를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정원은 한국의 야생종과 다년초 중심으로 7개의 계절의 섬세한 식재설계를 통해 식물의 성장과 쇠퇴가 반복되는 정원생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2019 안동시 LID 빗물정원 공모전 장려상

환경조경학과 이성구(석사과정)는 2019년 안동시와 K-water가 주관하는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공모전은 ‘물순환도시 안동’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될 빗물정원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 대학생 등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이성구는 “유유자적”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제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한국복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발표상

협동과정 조경학 송지용(박사과정),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9년 한국환경복원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도시 완충녹지의 공간유형별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여 최우수 발표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생태학습원 주변 지역의 완충녹지를 공간 유형별로 나누어 장기간에 걸친 시기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함께 기온과 상대습도를 포함한 미기후 변화를 관측하여 완충녹지로 인한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변화 정도를 요인별로 분석함으로써, 식생이 제공하는 대기 정화도를 제시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고찰하였다.

2.8 석·박사 학생 인턴십 활동

환경대학원은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5년 2학기부터 도시·환경 인턴십(Internship on City and Environment)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대학원 학생들은 국제기구, 도시·건축·조경설계사무소, 환경 관련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턴십 및 연수 활동에 참여 중이며, 2019년 1학기에 이루어진 인턴십 및 연수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UNU FLORES

안녕하세요. 환경관리학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배연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7월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2017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UNU FLORES(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Material Fluxes and of Resources)의 System and Flux Analysis Considering Global Change Assessment 부서에서 인턴 및 컨설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United Nations University는 2012년에 설립되어 UN 산하의 Think Tank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이중 UNU FLORES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자원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에 Nexus Approach라는 분야를 뛰어넘은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 토양, 폐기물 세 자원의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UNU FLORES의 System and Flux Analysis 부서는 모델링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의 제시를 위해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로, 저는 인턴기간 동안 이 부서와 Waste management 부서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Mezquital Valley 프로젝트(Assessing material flow with an ecosystem services approach: The case of Mezquital Valley, Mexico)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 관개용수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하수관개의 사회적, 생물학적, 생태적 영향을 모의하여 평가하고 최적의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환경계획학과 배연

SWAT(Soil & Water Assessment Tool)라는 수리모델을 이용하여 하수관개가 Mezquital Valley의 수량과 수질에 끼치는 영향을 모의 하였습니다. 보통 인턴에게는 선행논문 리뷰, 자료 조사와 같은 보조의 업무가 많이 주어지는데, 운이 좋게도 그 당시 제가 석사논문을 위해 배우고 있던 모델인 SWAT을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인 환경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연구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연구하면서, 모델링은 직접 실행하기 어렵거나 효과를 보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일들을 모의하여 관리 방법의 효과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구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신뢰할 수 있는 입력자료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국제기구였던 만큼 전지구적인 주제 또한 많이 논의되었는데, SDGs,



Nexus Approach와 같은 개념들이 실제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제가 근무하는 동안 UNU FLORES 진행되었던 UN day, Advisory Committee meeting, Nexus seminar series 등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국제기구에서 기구 안팎의 사람이나 다른 기구, 지역 사회와 어떻게 교류하고 가치를 공유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저는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과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고 이는 제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환경에 관한 일을 하는 국제기구는 이름에 환경이 들어있는 곳에 국한되지 않으며, 업무 또한 다양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원에

앞서 인턴을 지원하고자 하는 곳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업무를 위해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를 고려하고, 나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사에 따라 인턴에게 크게 관심을 주지 않거나 인턴에게는 간단한 업무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상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해나간다면, 자신이 인턴십을 통해 기대했던 것들을 얻어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존중받는 연구 환경에서의 경험은 연구자로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논의하며 발전시키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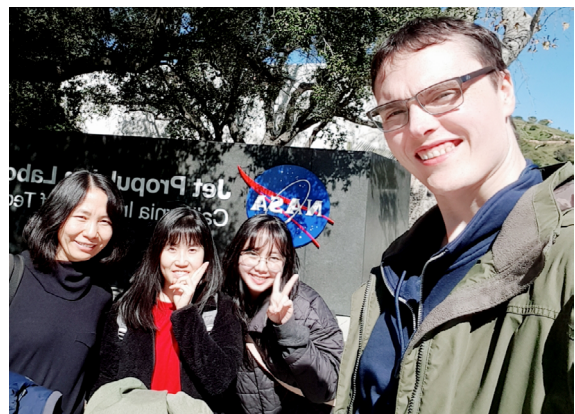
미국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

환경계획학과 박채린

안녕하세요. 환경관리학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채린입니다. 저는 올해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4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미국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NASA JPL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인 대도시 탄소 배출 관련 연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Megacity Project’라는 큰 프로젝트 내에서 미국 내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지상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관측 인공위성인 OCO-2,3(Orbiting Carbon Observatory)을 발사하여 전 지구 규모의 이산화탄소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NASA JPL에서는 이러한 여러 관측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탄소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문연구원으로서 NASA JPL의 여러 연구진과 제 연구 주제인 ‘Megacity Seoul CO2 Project’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고 모델링과 같은 연구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산화탄소 관측 인공위성이 없어 서울의 이산화탄소 농도 연구를 위해서는 NASA JPL의 OCO-2,3 위성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NASA JPL의 연구팀들과의 협업은 향후 서울, 한국 이산화탄소 연구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수 기간 동안 진행한 여러 논의를 통해 향후 서울 위성 관측 및 연구에 있어 NASA JPL 연구진들과 지속적인 협동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여러 논문으로만 알던 연구자들, 제가 연구에 사용하는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자들과 만나 매일 제 연구와 관련 논의를 하며 연구 주제를 발전시켜 나갔던 연수 기간은 제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수십 명의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분야가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수백 명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부러웠습니다. 4주간의 연수를 끝내고 귀국을 하면서 여러 전공이 융합되어 있는 환경대학원에서 남은 석사, 박사 기간 동안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NASA JPL에서의 연수 기간은 제 석사 연구 주제를 발전시키고 선진화된 NASA JPL의 연구 환경을 직접 느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던 매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연구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 논의를 하고 직접 연구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기회를 만들어서 도전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분명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NO	과제명	연구 책임자	발주기관
1	문화역서울 284 전시콘텐츠 구축 연구	조경진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서울대학교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정책 개발 연구	윤순진	서울대학교
3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조경진	서울특별시
4	조선 후기 감영의 조경 문화: 정원에 구현된 예술과 정치	임한솔	교육부
5	LIM-VR: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조경정보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이유미	교육부
6	에너지 효율적 근린주구 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 - 적응적 에너지 시뮬레이션 모델 및 동적 레인지 시스템의 적용을 중심으로	Jige Qu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연안생태적 위험과 연안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연안 관리	김지혜	교육부
8	건조환경이 주말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종합적 규명	김태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기후변화 위험시대 회복탄성을 고려한 적응 전략 연구팀	윤순진	교육부
10	스마트신호 기반 긴급차량 경로관리 및 신호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이영인	경찰청
11	초고령·저출산사회 도시쇠퇴를 대비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김세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도시 다양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연구	이석준	교육부
13	신남방 지역 대상 유망 국토교통 ODA 발굴 및 검토	이영성	한국교통연구원
14	2019 클로린 식물재단 Botany for Chage, 서울로7017 식물정원 공모전	조경진	민간기관
15	동아시아 탄소 순환 진단 시스템	정수종	서울대학교
16	Comparative study on urban form and energy in global cities	Jige Quan	서울대학교
17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교통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18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김경민	국토교통부
19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교통 수요 부문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0	도시 내 완충녹지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 모니터링	송영근	한국토지주택공사
21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2	기능 정세권 선생 아카데미 및 전시회 기획 운영 용역	김경민	지방자치단체
23	도시 교통사고 특성 파악을 위한 혼합연구방법 및 공간계량기법의 적용: 고령운전자사고를 중심으로	김태형	교육부
24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5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태계 수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유리	교육부
26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7	서부산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8	광양주택지역 운영방안 자문	이영성	민간기관
29	20세기 초반 경성 교외지역 개발과정과 지역성에 대한 연구	김경민	교육부
30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기반 지식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재구조화에 대한 실증분석	박소현	교육부
31	실측기반 초고정밀 3차원 수관구조의 재현과 동태모델링의 피지빌리티에 대한 연구	송영근	교육부
32	하천 내 유기화합물의 생지화학적 특성에 따른 하천-대기 간 이산화탄소의 이동량 변화	오능환	교육부

교수 동정

환경계획학과 김경민 교수

- 김경민 교수는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기업 설립해 지역 기반 산업 활성화 및 셰어하우스 운영모델을 실험하는 등 사회적 경제 분야 기여해왔다. 이와 함께 2017.10~2019.02 행정안전부 사회혁신민관협의회 위원장 수행 등 사회 혁신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9년 2월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환경계획학과 박인권 교수

- 박인권 교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포용도시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5월부터 매월 월례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 시리즈의 대주제는 "공유지로서의 도시"이고 상반기에 개최한 세미나의 세부주제는 '포용적 관점에서 본 도심 속 공장(심한별 박사 발표)', '우리나라 대도시의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의 현황과 대응(이민주 박사 발표)' 등이다.

환경계획학과 지거첸 Steven Jige Quan 교수

- 지거첸 교수는 Energy Procedia에 'Smart Design for Sustainable Neighborhood Development'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 Quan, S. J. Smart Design for Sustainable Neighborhood Development. Energy Procedia 158, 6515-6520. 2019.
- 2019년 4월에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된 The 49th Urban Affairs Association Conference에서 'Urban form and outdoor human comfort in the US downtown environments - case studies in Atlanta and Portland'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6월에는 중국에서 열린 The 13th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hina Planning (IACP) Conference에서 'Outdoor Human Comfort-Oriented Urban Design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논문을 발표하였다.
 - 2019년 4월 24~27일; Urban form and outdoor human comfort in the US downtown environments - case studies in Atlanta and Portland. The 49th Urban Affairs Association Conference, Los Angeles, U.S.
 - 2019년 6월 14~16일; Outdoor Human Comfort-Oriented Urban Design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The 13th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hina Planning (IACP) Conference, Chengdu, China.
- 2019년 3월과 5월에는 중국 Zhejiang University 교수인 Shulan Fu를 초청하여 'Urban form and historical roots'에 대한 강연과,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의 연구원인 Yoshiki Yamagata을 초청하여 Smart city design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2019년 3월 28일: Open lecture by Prof. Shulan Fu (Associate Professor, Zhejiang University, China): Urban form and historical roots: Cities in China and Japan
 - 2019년 5월 3일: Workshop with Dr. Yoshiki Yamagata (Principle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Japan) and his team: Smart City Design
 - 2019년 6월 27일: Symposium with Prof. Athanassios Economou (Professor,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S.) and his team: Smart Design - Shape Machine and Form Representation

- 지거첸 교수는 2019년 3월까지 서울대 국제협력단에서 자문위원을 하였으며, 6월 9일에 중앙대학교에서 'Research Design and Publication Tips'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 Advisory Committee Member,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from March, 2019)
- Research Design and Publication Tips, Chinese Doctors and Scholars Association in Korea, Chung-Ang University, June 9, 2019

환경계획학과 홍종호 교수

- 홍종호 교수는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금강 및 영산강 소재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홍교수는 2019년 4월 한국재정학회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홍교수는 LSEP(지속가능경제·정책연구실) 소속 지도학생들과 공저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의 장기 에너지전력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논문을 Energy Policy(SSCI 및 SCIE 등재) 최신호(2019년 4월)에 게재하였다.
- "Long-term energy strategy scenarios for South Korea -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nergy system," Energy Policy 127, pp. 425-437, 2019.

환경계획학과 윤순진 교수

- 윤순진 교수는 2019년 명인출판사 단행본 「한국사회 논쟁」에 공저자로 참여하였으며, 3건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2019년 3월 「환경교육」에 “북한의 기후변화 교육: 기후변화 교육의 남북 협력을 위한 탐색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에는 안새롭, 이찬희(이상 박사과정),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 6월 「공간과사회」에 “경유화물차 축소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 모색: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해당 논문에는 홍덕화(충북대 교수), 박진영, 박선아(이상 박사과정)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 6월 「신재생에너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갈등에 대한 기초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의 정책과정 분석”을 임현지(석사졸업)와 공동으로 게재하였다.
- 윤순진 교수는 국제 워크숍과 포럼에 초청되어 에너지전환에 대한 전략, 쟁점, 대응 등을 발표하였다.
- 2019년 2월 Research Workshop on Energy Transition and Democracy in East Asian Countries에서 “Energy Transition and Democracy in Korea”, 3월 8일 일본에서 열린 The Inaugural Congress of East Asian Sociological Association에서 “The Current Status of and Challenges to Energy Transition and Climate Action in South Korea”,
- 5월 31일 Jeju Forum 2019 for Peace and Prosperity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Future Direction and Strategy of Sustainable Jeju (지속가능한 제주의 방향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 2019년 6월에서는 대만 경제성 차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 6월 4일에는 Asia Local Energy Governance Strategic Workshop에서 “Energy Transition and the Connection to the Public: On Communication Strategy”를
- 6월 5일 International Symposium: Toward the Future Society of Environment, Energy and Economy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Transition in East Asia에서 “Energy Transition and Fake News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환경계획학과 정수종 교수

- 정수종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9년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고텐바에서 열린 GCP(Global Carbon Project) RECCAP2 미팅에 아시아 대표로 참가하여 중국 북경대, 일본 NIES와 함께 동아시아 탄소 연구를 이끌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2019년 4월 24일에는 일본 NIES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Seoul CO2 Monitoring Network'에 대해 소개하고, 서울과 도쿄의 'Megacity CO2 Project'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2019년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대, 연세대, KIST, 강원대가 함께한 모바일랩 겨울 미세먼지 측정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월 25일에는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2019 서울시 도심 대기질 및 온실가스 진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서울 도심 대기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2019년 5월 14일에 산림과학원과 함께 미세먼지 측정 캠페인,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 공유 및 인식 증진을 위한 현지 연찬회'를 진행하여 도시숲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구재단 중견과제('대도시 CO2 변동성과 기후변화 기여 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과제('Bottom-up 모델링 기반의 동아시아 지표면 탄소 플럭스 모의 연구'), 한국임업진흥원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사업과제('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숲 내외 미세먼지 진단기술 개발'), 서울기술연구원 과제('서울시 지역별 폭우 특성 규명을 위한 상세 강수분석 연구용역'), 국립산림과학원 과제('대기모델링을 활용한 도시외곽림의 도심 미세먼지 저감 효과 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통일 과제('북한의 기후 변화 및 그에 따른 산림 생태계 변화 연구')에 선정되어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

-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유연환, 양유선(이상 박사과정)과 함께 소쇄원(瀟灑園)을 주제로 한 '한국의 정원展, 낯설게 산책하기'란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소쇄원 속에 담긴 가치와 의미, 심미적 미학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또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창립 20주년을 맞은 기념학술행사에서 '기념물에서 경관으로-세계유산으로서 문화경관 재조명'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 5월 26일에는 북경임업대학교에서 장림(박사과정)과 함께 진행한 연구 '한정우기(閑情偶寄) 종식부(種植部)를 통해 본 식물의 상징성과 완상 방식'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

- 조경진 교수는 2019년 2월 18일 일본 가나자와대학교에서 열린 Symposium on Design and Technology of Sustainable Architecture에서 서울식물원 설계사례를 주제 발표하였다. 발표 제목은 Seoul Botanic Park, Inventing New Type of Sustainable Park이었다.
- 조교수는 2019년 3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리는 '디엠지(DMZ)' 전시를 기획하였다. 그는 '디엠지의 생명환경' 섹션을 기획하면서 환경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 및 예술가 등과 협업한 다수의 전시를 선보였다. '248km 야생정원' '전망대를 따라간 평화관광길' 'DMZ 쌀' 'DMZ 사운드스케이프'의 전시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중 몇몇 전시 프로젝트는 지난 3년간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지원받은 'DMZ 평화예술프로젝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조교수는 비영리예술단체 '리얼디엠지프로젝트' 대표로도 활동하면서, DMZ전시를 금년 가을 런던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환경조경학과 비베 콰이테르트 Wybe Kuitert 교수

- Wybe Kuitert 교수는 2019년 3월 8일, 교토에 위치한 국제일본학연구소에 초청되어 향후 연구에 관한 논의와 강의를 하였다.
- 또한 2019년 3월 30일 일본에서 열린 ACAH2019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History 세션으로 "Re-Imagining Education: Growth, The Garden, and Japan Perceptions of Constantijn Huygens"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Wybe Kuitert 교수는 2019년 1학기 Landscape History 수업에서 서울 경동 약령시장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한약재를 직접 구매하고 서울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을 방문하여 한약재들을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조경학과 이유미 교수

- 이유미 교수와 노승민(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은 5월 22일~25일 독일 데사우에서 개최된 2019 Digital Landscape Architecture(DLA) Conference에 참여하여 “How Useful are Virtual Reality Simulations to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ase Study”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발표를 하였다. 올해 DLA학술대회는 Landscape: Informed by Science, Shaped by Design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이유미 교수와 박재현(식사과정)은 3월 29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2019년도 한국조경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가상현실 게임엔진을 활용한 조경설계 연구, VR 정원 제작”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발표를 하였다.



환경조경학과 김세훈 교수

- 김세훈 교수는 LH공사에서 조성 중인 2기 신도시 동탄2의 문화디자인밸리에 대한 도시설계를 수행 중이다. 약 50만 평 규모의 특별계획구역 중 Tri-M Park ~ 미디어몰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문화/상업/업무공간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성화 전략 및 공공 투자부문 공간설계 등을 제안한다.
- 2019년 상반기에는 단독 혹은 공저로 도시쇠퇴와 디자인 전략에 대한 주제로 Journal of Urban Design,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등 3편의 국제저널 논문을 출판했다.

환경조경학과 송영근 교수

- 송영근 교수는 1)도시 공원의 미기후 및 열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물 배치 최적화 연구, 2)시공간 동태 (dynamics) 규명에 따른 잔존림의 생태적서비스 가치변화 평가연구, 3) 선형 맵핑 모델을 활용한 한반도 전반에 걸친 생태적 연결성을 연구 등 세 편의 SCI급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한국지적정보학회지에 우면산을 대상으로 GIS, 위성영상을 활용한 종분포 모델링을 수행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침입교란 종 공간적 분포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
- Yingnan Li, Youngkeun Song (2019). “Optimization of Vegetation Arrangement to Improve Microclimate and Thermal Comfort in an Urban Park”, International review for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19 Volume 7 Issue 1 Pages 18-30
- Han, Y., Kang, W., Thorne, J., & Song, Y. (2019). “Modeling the effects of landscape patterns of current forests on the habitat quality of historical remnants in a highly urbanized area”, Urban Forestry & Urban Greening Volume 41, Pages 354-363

- Kang, W., Thorne, J. H., Kim, G., Lee, D., & Song, Y. (2019). "Conserving terrestrial linkages that connect natural landscapes of the Korean Peninsula"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Volume 91(6)
- 강완모, 송영근, 이동근, 채희명 (2019), "GIS와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시숲 침입교란종 분포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1, no.1, pp. 140-152 (13 pages)

신임 교수 인사 **환경계획학과 박인권 교수**

박인권 교수가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부교수로 부임하였다. 부임 첫 학기인 2019년 1학기에는 '도시계획론'과 '토지이용계획론'을 강의하였고, 2학기에는 '국토·지역계획론'과 '도시통계분석'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이학사,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 행정학과에서 1년 간 조교수로 근무하다 2011년부터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에서 7년 반 동안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그 동안 우수강의상을 4회 수상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등으로부터 학술상을 4회 수상한 바 있다.



박인권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 통합적 계획, 도시 커뮤니티 개발, 지역 혁신 및 경제 개발 등 도시 및 지역계획의 제반 분야에 걸쳐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지역의 사회적 통합 및 포용성 증진, 지역균형발전 등 도시 및 지역계획과 관련된 사회통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사회정의와 형평성의 측면에서 도시와 지역의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균형적·포용적·통합적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 공유지의 형성 조건과 특성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 쇠퇴하는 도시의 토지 및 자산의 이용과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도시의 무형 자산으로서 집적경제의 원천과 산업·경제 및 지식 생산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 공간 계획 요소와 소음 등 도시환경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등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환경대학원이 계획 분야를 선도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척하며, 혁신적 연구와 교육을 이끌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석·박사 과정

5.1 2018학년도 전기 졸업식

2018학년도 전기 졸업식이 2019년 2월 26일 화요일에 거행되어 석사 40명(환경계획학과 24명, 환경조경학과 16명), 박사 14명(환경계획학과 7명, 협동과정 조경학 7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다. 졸업식에는 석사학위 우수논문으로 환경계획학과 문산유, 이지원, 조규원, 이제영, 이동광, 환경조경학과 김소연, 김영환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5.2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식 및 장학금 수여

2019년 1학기에는 석사과정 52명(환경계획학과 32명, 환경조경학과 20명), 박사과정 25명(환경계획학과 16명, 협동과정 조경학 9명)이 환경대학원에 입학하였고, 3월 4일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입학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환경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에는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동문 장학금, 조경동문 장학금’이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는故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님을 기리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유은선 학생**(석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강인구**(석사과정), **양태양**(석사과정), **박시현**(석사과정), **한수정**(석사과정), **환경조경학과 유예슬**(석사과정)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교통학 전공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이준호**(석사과정)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은 환경관리학 전공 재학생 중 논문실적을 고려하여 우수한 국내외 학술활동을 한 학생 2명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김나현**(박사과정)학생과 **심소정**(석사과정)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조경동문 장학금**은 환경조경학과 재학생 중 학업성적과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환경조경학과 **서승우**(석사과정)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5.3 학생회 활동

1) 아랫정원은 24시간 오픈 중

작년 9월에 오픈한 열린 플랫폼에 설치된 카페 ‘아랫정원’은 학생회 관리 하에 여러 학생들에게 잠시간의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한 환경대학원 구성원을 위해 올해는 새로운 간식과 더욱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열린 플랫폼에서 공부에 매진하던 학생들은 아랫정원에서 잠시 망중한을 즐길 수 있어 호평을 얻고 있다.



2) 학생회장 선거 및 간식 행사

2019년 2학기 2020년 1학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를 6월 5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였다. 총 재학생 255명 중 153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찬성 131표로, 학생회장에 환경계획학과 임다은, 학생부회장에 환경계획학과 김그린 학생이 당선되었다. 또한

기말고사 기간과 논문 및 프로포절 발표기간을 맞이한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간식 행사도 같이 진행되었다. 학생회가 준비한 간식이 30분 만에 동이 나며 학생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3) 종강파티 - 현대인의 밤

2019년 1학기 종강을 맞아 6월 12일 환경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종강파티 '현대인의 밤' 행사 <Chillax Party>를 진행하였다. 처음 진행하는 이 행사를 맞이하여 학생회는 열린 플랫폼 공간에서 모든 구성원이 격의 없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에 성의를 다하였다. 종강 파티 분위기를 내기 위한 데코레이션 및 조명 설치와 DJ 초청, 케이터링 등이 준비되어 모든 이들이 즐기며 한 학기의 마무리를 기념할 수 있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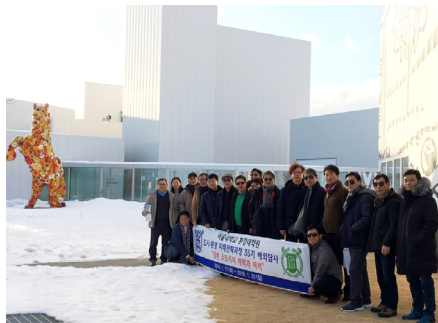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국립대학교
공간지식
재생학교

6.1 SGS 제35기 해외시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제35기는 1월 17일(목)부터 20일(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해외답사를 다녀왔다. ‘일본 소도시의 매력과 저력’을 주제로 일본 노보리메츠, 하코다테, 아오모리, 미사와 등을 방문하였다. 35기 과정생 18명, 동문펠로우 2명과 성종상 원장, 전상인 주임교수, 조정진 부주임교수, 손용훈 교수가 함께 하였으며, 주요 답사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날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둘째날	노보리베츠 지다이마을 하코다테 하치만자카 모토마치 언덕, 로프웨이 야경
셋째날	아오모리 후루카와 시장 도와다 현대미술관
넷째날	미사와 시부사와 공원



6.2 SGS 제35기 오픈특강

SGS 제35기 과정에서는 1월 31일, 김난도 교수(서울대 소비자학과)를 초청하여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주제로 오픈특강을 개최하였다.

제35기에서는 모두 4회의 오픈특강이 마련되었다. 오픈특강은 과정을 수료한 펠로우들과 환경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동문들에게도 개방된다. 오픈특강에는 매회 20명 내외의 수료한 펠로우 및 석·박사과정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6.3 SGS 제35기 수료식

2월 14일(목),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35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의 수료식이 있었다. 35기 과정은 2018년 8월 30일 출범하여 전, 후반기 총 18주 동안 도시, 건축, 조경,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30개 세션의 교육과 국내 및 해외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문 펠로우 및 석·박사과정 학생, 동문에게 개방되는 4회의 오픈특강도 마련되었다. 35기에 진행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반기

1	개강특강 -분단의 풍경을 보다, 전망대 프로젝트	조경진 교수
2	공간계획의 인문사회학	전상인 교수
3	왜 도시를 압축해야만 하는가?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4	오픈특강 I -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의 언어	김은성 KBS 아나운서, 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 박사
5	건축도시공간, 연구-정책연구-국책연구소	박소현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6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그리고 도시의 혁신	이영성 교수
7	서울선언 - 주변부로부터 조감한 "대서울"의 역동성	김시덕 교수/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8	축적의 길, 스케일업 혁명	이정동 교수/서울대 산업공학과
9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10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전략 -상업용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김현석 대표/STS개발
11	MaaS와 미래교통	안석환 과장/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12	모빌리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재호 소장/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연구소
1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초지방 관계	이태동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14	도시화와 기후변화	정수종 교수
15	오픈특강 II - 시를 산문의 경계는 어디인가?	정호승 시인
16	부동산정책과 시장변화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대학원
17	사업모델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평가와 과제	변창흠 교수/세종대, 前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18	북한경제와 새로운 남북경협 가능성	이석 박사/KDI 경제전략연구부
19	통일과 남북한 교통체계의 통합	안병민 박사/한국교통연구원
20	여성주의와 공간계획	정현주 교수
21	여행 속 도시공부 - 도시재생사업과 새로운 관광지의 탄생	서현정 대표/뚜르 디 메디치
22	오픈특강 III - 포스트 휴먼 시대, "역사, 어디로 가는가?"	김기봉 교수/경기대 사학과

후반기

23	그린을 통한 건강 행복 증진	성종상 대학원장/환경대학원
2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적정기술의 적용	윤제용 원장/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5	식물, 문화가 되다: 서울식물원의 사회적 가치	조경진 교수
26	국토경관의 관리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손용훈 교수
27	오픈특강 IV - 트렌드 코리아 2019	김난도 교수/서울대 소비자학과

*펠로우 플랫폼이 전반기 4세션 진행됨

제35기에 수료하는 23명의 펠로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성민(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

구창용(SKE 대외협력실 상무)

권현복(경원목재 대표)

김영삼(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원호(해안건축 소장)

김재용(정림건축 상무)

두철언(김포시청 장기본동장)

박상섭(디에이그룹 전무)

박지만(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교수)

송재식(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안전처장)

신은주(남곡농원 대표)

엄형원(PMK 대표)

윤강호(로프캠프 대표)

이종대(바른도시개발 회장)

이창재(현대토건주식회사 대표)

주용돈(대한소재 대표)

최성필(서울동부지방방법원 부장검사)

최판규(이천시청 도시계획과장)

최현실(서울시 공원조성과장)

편성희(중소벤처기업부 읍무즈만지원단 전문위원)

현재한(밸류아트텍 대표)

홍성재(한성대 창업지원팀 교수)

황정화(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6.4 SGS 제36기 출범식

2019년 3월 21일(목),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층 마로니에룸에서 제36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의 출범식이 있었다. 그동안 가을에 출범하여 다음해 봄에 수료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던 방식을 개편하여 36기 과정은 봄에 출범하여 가을에 수료하게 된다.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가 주임교수를 맡게 되었고, 환경계획학과 정현주 교수가 부주임교수로 참여한다. 행사에는 홍종호 대학원장을 비롯한 원내 교수님, 전병성 환경대학원 총동창회장, 박찬정 최고위과정 동창회장과 동문 펠로우, 36기 과정생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출범을 축하하였다.

전, 후반기 총 21주 동안 32회의 교육과 국내답사 및 해외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36기 과정에서도 동문 펠로우 및 석박사과정 동문 및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특강을 5회 마련하여 분야의 이슈가 되는 주제로 비중 있는 강연자를 초빙할 계획이다. 전반기에 진행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간략한 강의노트를 e-환경논총에 실을 예정이다.

1	개강특강 -평화관광으로의 전환: 철원을 중심으로	조경진 교수
2	공간계획의 인문사회학	전상인 교수
3	국책사업의 경제성 평가	홍종호 환경대학원장
4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정수종 교수
5	도시 빅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다	김승범 대표/VW LAB
6	분경과 냉전경관	정근식 교수 / 서울대 사회학과
7	남북협력과 도시계획	이영성 교수
8	개성과 개성공단	황두진 대표 / 황두진건축사사무도
9	리더의 말과 글	강원국 초빙교수 / 전북대
10	세 여자로 본 근대 지식인의 초상	조선희 작가
11	오픈특강 I - 5G가 열어가게 새로운 세상	유영민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도시 제조업의 미래	남기범 교수 / 서울시립대
13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공간	정현주 교수
14	오픈특강 II - 메가폴리스와 메타폴리스	승효상 대표 / 이로재
15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전략	김도년 교수 / 성균관대
16	그린을 통한 행복증진	성종상 교수
17	오픈특강 III - 열하일기 속의 공간	고미숙 작가

*펠로우 플랫폼이 전반기 4세션 진행됨

후반부에는 부동산, 교통, 문화예술, 환경, 에너지 분야 등을 주제로 12회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36기에 참여하는 35명의 펠로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갑수(글로벌그린시티 대표)
 김동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민석(에이치엠지 부사장)
 김범석(우리벽돌 대표)
 김부성(부자학연구소 대표)
 김상래(아트디자인센터 대표)
 김성훈(실내환경연구소 대표)
 김영기(GA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김정태(동양건설산업 SOC사업팀장)
 김태훈(한국감정원 상임이사)
 김한규(해안건축 본부장)
 김현근(공간설계 대표)
 나용환(서울주택도시공사 공유재산관리단장)
 문길주(대신이엔디 대표)
 박경태(법무법인 현 이사)
 박기훈(신동아건설 상무)
 박소아(다음소프트 센터장)
 박준석(아세아종합건설 대표)

박철희(이천시청 도시개발과장)
 복성준(DA그룹건축사사무소 상무)
 안병관(제마코에어라인 대표)
 유영봉(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주현(jhy건축사사무소)
 이상석(부산이엔이 대표)
 이재면(수원시 도시계획과장)
 이현복(정성모터스 대표)
 장민(KT 상무)
 전상우(정림건축 본부장)
 정태환(한국환경공단 본부장)
 최두희(한솔EME 대표)
 최연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차장)
 최유진(소방청 주무관)
 최재원(아트센터 나비 수석큐레이터)
 최희철(한국환경복원기술 대표)
 홍성우(고양시청 팀장)
 황상철(K-water 처장)



6.5 SGS 제36기 국내답사

제36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에서는 4월 22일(금), 23일(토), 국내답사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에 다녀왔다. “평화협력 시대의 DMZ와 접경지역”이란 주제로 첫째 날에는 ‘문화역 서울 284’에서 ‘DMZ’ 전시회를 관람한 후 철원으로 이동하여 노동당 사, 소이산을 살펴보았다. 저녁에는 조경진 주임교수의 “평화관

광으로의 전환: 철원을 중심으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철새평화타운, 평화전망대, 평화문화광장, 철원 구시가 지 등을 둘러보았다.

이번 답사에는 조경진 주임교수, 정현주 부주임교수와 25명의 36기 펠로우가 함께 하였다.



6.6 SGS 제36기 오픈특강

제36기 전반부 과정에는 3회의 오픈특강이 개최되었다.

- 5월 16일, 유영민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
- 5월 30일, 승효상 대표/이로재, “메가폴리스와 메타폴리스”
- 6월 20일, 고미숙 작가, “열하일기 속의 공간”

오픈특강은 기존에 수료한 펠로우들과 환경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동문들에게도 개방되는 특별강연이다. 오픈특강에는 매회 60명 참석하고 있다. 후반기에도 2회의 오픈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 9월 19일,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변화와 도시”

- 10월 24일, 진희선 부시장/서울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강의는 7시부터 환경대학원 3층 글로컬홀에서 진행되며, 6~7시에 대학원 인근 두레미담에 식사가 준비된다. 좌석마련과 식사준비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관심 있는 동문께서는 최고위과정 사무실(02-880-8525, snusgs@snu.ac.kr)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6.7 SGS 제36기 개강파티

3월 28일(목) 저녁, '열린 플랫폼'에서 36기 개강파티를 겸한 대학원 교수님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홍종호 원장, 전상인 교수, 박인권 교수, 김태형 교수, 조정진 주임교수, 정현주

부주임교수와 36기 펠로우 30여 명이 참석하여 담소를 나누며 친교시간을 가졌다.



6.8 SGS 제36기 펠로우 플랫폼

펠로우 플랫폼은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에 참여하는 펠로우들이 각자 담당하는 분야/업무를 소개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이다. 그 곳에서 도시환경 분야의 현안 문제를 선정하여 각 분야의 융합/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4월 18일(목), 각자 담당하는 업무 및 분야를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 간 논의가 가능하도록 네 팀으로 나누어 과제를 정하였다. 각 팀별 주제는 다음과 같으며, 6월 27일 과제 수행 결과를 발표하였다.

1팀 도심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

2팀 미세먼지에서 살아남기

3팀 도시공원 일몰제

4팀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정원사

2019년 4월 5일 서울대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2019년도 상반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이 시작되었다.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공원 및 수목원, 마을가꾸기 등의 자원봉사자 방식으로 정원문화에 참여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본 과정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과정 중 이론 위주의 과정이 본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서 주관하여 2년간 운영되다가 2016년부터 정원에 적합성이 더 높은 우리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9 봄학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 70여 명의 수강생들은 5월 24일 태안 천리포 수목원으로 답사를 떠나 수목원 투어와 함께 조경식 재식물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

8.1 교통 동문 신년하례회

지난 2월 28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4회의실에서 교통동문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행사에는 환경대학원 교통학 전공 석·박사 졸업생 및 재학생과 임강원 명예교수, 김성수 교수, 이영인 교수, 장수은 교수 등 50여 명의 교통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신년하례회는 임강원 명예교수의 격려사와 김연명 동문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고, 국내 연구원과 기업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범철 박사에게 기념패 전달식을 진행하고 우수한 학업활동을 한 이준호 석사과정 학생에게 교통동문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후에는 저녁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8.2 서울환경포럼 춘계 동문 체육대회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서울대학교 기숙사(관악사) 체육관에서 서울환경포럼(회장 우정현, 환경 89, 건국대학교 교수) 주최 2019년 춘계 동문 체육대회가 열렸다. 서울환경포럼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 전공 동문회의 명칭이며, 이번 행사는 체육행사를 통해 동문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에는 우정현 회장을 포함한 총 40여 명의 환경관리전공 동문과 전/현직 교수,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간단한 몸풀기 운동 이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농구, 피구, 배드민턴 경기를 함께 했다.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시상식을 끝으로 체육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동문 간의 결속을 다졌다.



8.3 환경조경학과 동창회 홈커밍데이

환경조경학과 동창회 주관으로 지난 5월 25일 토요일 서울대 학교 벚들골 잔디밭에서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줄다리기, 꼬리잡기 등 게임을 통해 선후배 동기들이 함께 땀 흘리며 친목을 다졌으며 동문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또

한 참석한 교수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매년 개최하는 환경조경학과 홈커밍은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동문들끼리 서로 안부를 전하고 재학생들에게 진로에 관한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된다.



8.4 SGS 동창회

1) 총회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동창회는 5월 16일(목), 환경대학원 2층 205호에서 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동창회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현직 동창회 임원 및 기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정진 주임교수도 참석하여 8대 동창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8대 회장에 취임한 박찬정 회장은 SGS16기를 수료하였으며, 현재 지디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면서 서울건축산업연구원 원장이다. 신임 동창회 사무총장은 16기 김동희 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가 임명되었다.

임기 중의 노고에 대한 SGS동창회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송두영 전임 회장(대승산업 사장)과 최송휴 전임 사무총장(씨케이에코 대표)께 감사패가 전달되었으며, 박찬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내실 있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하고자 한다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박찬정 회장과 김광호 부회장(18기, 느티나무 대표) 등은 36기 오픈특강을 마치고, 36기 펠로우들을 환영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 SGS 동창회 장학기금

SGS 동창회에서는 2014년까지 매학기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3인에게 각각 200만원씩 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2015년부터는 장학금 운영방식을 개편하여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환경대학원 글로벌 교육연구'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 기금으로 환경대학원 석·박사 학생들의 해외 학술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2019년 상반기 '환경대학원 글로벌 교육연구' 발전기금 출연자이다.



박찬정(16기, SGS 동창회장)
서울건축산업진흥원 원장
400만원



김진학(29기)
영남건설 대표
300만원



주용돈(35기)
대한소재 대표 100만원

동문 동정

9.1 석·박사과정

- ◎ **고문현 동문**(도시 94)은 2019년 2월 11일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학생들을 인솔하여 대만 IUTR과 State Power Corporation를 방문하고, 12일 대만 동호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Energy)에서 "Korean Energy Policy and CCS"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1일에는 미국 Washington D. C.에서 개최된 Law and Society Association 2019 Annual Meeting에 참석하여 'Necessity of CCS(Carbon-dioxide Capture and Storage) in an era of Energy Mix and Outline of Draft of Korean CCS Act'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2019년 6월 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 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임시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고문현 동문은 두 권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 고문현, 이승은 공저,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 21세기북스
- 고문현, 정수누길, 이승은 공저, **EU기후변화정책의 이해**, (주)박영사 (출간일 2019.0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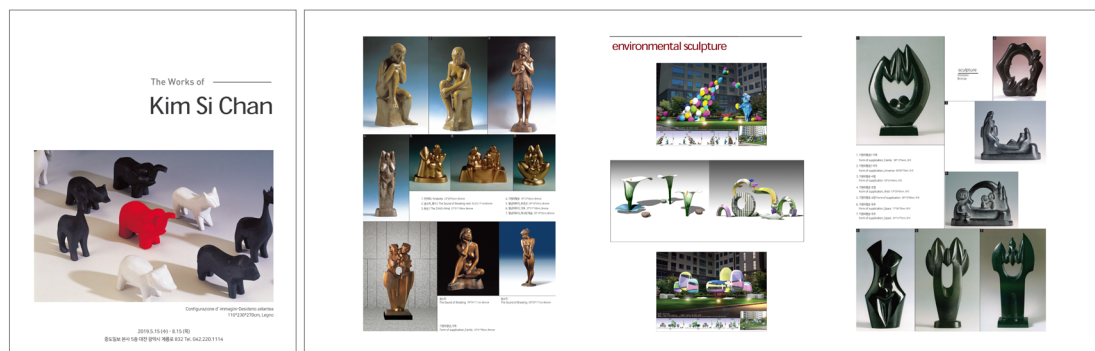
- ◎ **김주영**(환경관리, 15학번) 농촌진흥청 코피아 볼리비아센터 책임연구원은 오마이뉴스 기자 업무를 병행하며 한국-볼리비아 국제개발 협력 현장과 남미정보(여행 등)를 국내에 전달하고 있다.

- 평창에서 촉발된 '한일 딸기전쟁', 막전막후 <http://omn.kr/1jix0>
- 볼리비아 수도 라파즈에서 놓치면 안 될 여행 명소 10곳 <http://omn.kr/1j6x1>

9.2 SGS

제16기 자치회

- 김시찬(서영대학교 교수) 펠로우는 5. 15(수) ~ 8. 15(목)까지 중도일보 본사 5층(대전광역시 계룡로 832)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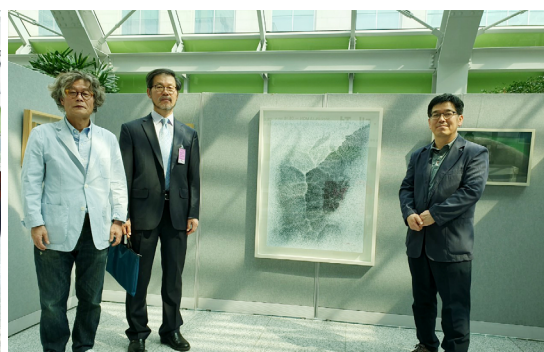
제20기 자치회

- SGS 20기 자치회는 6월 24일(월), 청담동 '칠량'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한다. 지승준 자치회장(해안건축 소장), 김대문 사무총장(하우드 본부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펠로우가 참석한다.



제28기 자치회

- SGS 28기 자치회는 1월 11일(목), 정동 '어반가든'에서 두 번째 정기모임을 하였다. 유태식 자치회장(아우디플라워 대표)을 비롯한 10여 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여 친교시간을 가졌다.
- 이강용 펠로우는 5월 13일(월) ~ 15일(수)에 국회의원회관 3층 중앙홀에서 '이강용 초대전'을 개최하였다.



제29기 자치회

- **김종석**(기상청장) 펠로우가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세계기상총회'에서 집행이사로 당선되었다.



제32기 자치회

- **SGS 32기 자치회**는 1월 16일(수), 여의도 '홍보석'에서 2019년 첫 번째 정기모임 및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지진호 자치회장(뉴그린 창신 전무)을 비롯한 10여 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여 새 해의 기운을 나누며 활기찬 한 해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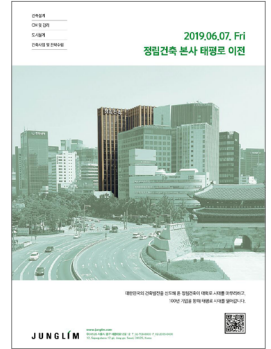
- **SGS 32 자치회**는 3월 29일(금), 당진의 파인스톤CC에서 골프 율례회를 개최했다.



- **SGS 32기 자치회**는 4월 17일(수), 양재동 '오선채'에서 2019년 주 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 **SGS 32기 자치회**는 6월 28일(금), 29일(토), 1박 2일의 일정으로 '당진 문화기행 및 골프 율례회'를 개최했다. 당진 삼교호 해안탐방로와 왜목마을 등을 둘러보고, 파인스톤CC에서 운동을 진행하며 친교시간을 가졌다.



- **임진우**(정림건축 대표) 펠로우가 정림건축이 45년 간의 대학로 시대를 마감하고, 6월 7일(금)에 태평로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 **임진우**(정림건축 대표) 펠로우가 6월 20일(목), 21일(금) 16:00, EBS '예술아 놀자' 편에서 소개된다. 임진우 대표는 따뜻한 시선으로 사라져가는 동네와 작은 집들을 수채화로 담아내는, 그림 그리는 건축가이다.



제33기 자치회

- **SGS 33기 자치회**는 1월 30일(수),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 내 '거울못 식당'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영권(동아석재산업 대표) 자치회장, 업형원 사무총장(PMK 대표)을 비롯한 펠로우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새해의 덕담을 나누며 우정을 다졌다.



- **SGS 33기 자치회**는 4월 20일(토), 일곱 번째 문화기행의 일환으로 양재천과 시민의 숲을 둘러보았다. 이영권 자치회장과 5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으며, 봄꽃이 만연한 도심 공원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제34기 자치회

- **전상구**((주)동산 대표) 펠로우는 6월 14일(금), 경북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대 경영자상'을 수상하였다. '동산'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순환형 사회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5기 자치회

- SGS 35기 자치회는 4월 6일(토), '전상인 주임교수님과 함께하는 봄 소풍, 북한산 산행' 행사를 가졌다. 전상인 교수와 권현복 자치회장을 비롯한 6인의 펠로우가 함께하였다.



- SGS 35기 자치회는 5월 25일(토), 안성의 아덴힐CC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



- 6월 10일(월), 강남구 '해담재'에서 '35기 정기모임'이 있었다. 3월 수료이후 첫 정기모임으로 20여 명의 펠로우가 참석하였으며, 지난 과정의 추억과 회원들의 근황을 나누며 화합을 다졌다.



- 윤강호(로프캠프) 대표는 1월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고용안정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신은주(남곡농원) 대표는 5월 18일(토), 남곡농원(이천 백사면 도립리 403번지) 내에 숲속 휴식 공간 <파머스 플레이스>를 오픈하였다.

제36기 자치회

- SGS 36기 과정생들은 4월 14일(일) 온라인투표를 통해 자치회장에 박준석 대표(아세아종합건설)와 감사에 김동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를 선출하였다. 수석부회장으로는 박소아 센터장(다음소프트)이 임명되었다.



- SGS 36기 과정생들은 소모임 활동으로 4월 24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시향 정기공연에 다녀왔다. 김동현, 이현복, 최재원 펠로우 등이 참석하였으며, 공연에서는 노르웨이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빌데 프랑이 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 이사 강은경)과 수석객원지휘자 티에리 피셔 지휘로 스트라빈스키의 협주곡을 들려주었다.



- SGS 36기 과정생들은 소모임 활동으로 6월 1일(토), 소마미술관의 <소화(素畵)-한국 근현대 드로잉> 전시에 다녀왔다. 최재원 펠로우를 비롯한 36기 6인이 함께 하였으며, 전시투어를 마치고 올림픽 공원 산책하며 친교시간을 가졌다.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2018.12~2019.5)

“동문 여러분들의 발전기금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규모	기부자 및 기부금액
1,000만 원 이상	지역사회 참여형 사회혁신 전문인력 양성기금(2억 1천만 원 약정) (재)행복나눔재단 7,000만 원
500 ~ 1,000만 원	환경관리전공기금 [(주)오이코스(대표이사 배장영, 환경87)] 500만 원
100 ~ 500만 원	SGS글로벌리더십기금 (주)지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SGS동문화장 박찬정(SGS 16기) 400만 원 김진학(SGS 29기, 영남건설 대표) 300만 원 (주)대한소재/주용돈 대표(SGS 35기) 100만 원 동해종합기술공사장학금 (주)동해종합기술공사/정점래 대표(교통88) 400만 원 조경 전공 인간환경디자인연구실 졸업생 일동 300만원(1천만 원 약정)
100만 원 미만	환경조경학과 장학기금 안계동(조경 79,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100만 원 유형식(조경 94, PMA엔지니어링 대표) 50만 원 환경관리전공 학술헌동 및 장학기금 전의찬(환경85, 박사88, 세종대학교 교수), 강신규(환경93, 강원대학교 교수) 김영삼(환경96, 삼성 SDS), 김현국(환경01, 국립환경과학원) 박년배(환경00, 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육근형(환경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환경대학원 위임 전제열(도시03,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정광욱(환경00, 삼성SDS) 환경대학원 교수 발전기금(총 2억 원 약정) 김광중(환경대학원 교수) 240만 원, 전상인(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이영성(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김경민(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김성수(환경대학원 교수) 75만 원, 이영인(환경대학원 교수) 75만 원 장수은(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이동수(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홍중호(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오능환(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윤순진(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조경진(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성종상(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손용훈(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이유미(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김세훈(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최막중(환경대학원 교수) 40만 원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지금 바로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단체 기부 모두 가능)



(1만 원부터)



(일시납, 분할납, 약정 후 월납)

모두 가능합니다 연락만 주세요

문의 | 대외협력조교 윤병석 02-880-5669 gsesnews@snu.ac.kr

|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환경대학원 재학생 장학금 (연간 재학생 22명, 약 2천만 원) ※ 여러분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국제학술활동 경비 지원 (연간 재학생 12명 내외, 약 1천만 원)	환경대학원 시설 개선 사업 (학생 연구 및 복지 공간 개선)
---	---	---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제공)

1억 원 이상	기부자 명패 제작 (서울대 본부/연구공원 명예의 전당 등재)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1억 원 당 1년 1회)	포스코 스포츠 센터 무료 이용 (1억 원 당 1년)
1천만 원 이상	기부자 디지털 게시 (서울대 본부 명예의 전당)	근조기 발송 서비스	중앙도서관 평생 이용 미술관, 박물관 무료
1백만 원 이상	발전기금 회원카드 발급	중앙도서관 이용(1년) 호암 교수회관 할인	기부자 명패 제작 (환경대학원)



특별 소식 故 최막중 교수 별세 및 영결식

우리 대학원의 환경계획학과 故 최막중 교수께서 2019년 1월 17일 영면에 들었다. 빈소에는 대내 외의 많은 인사들이 방문하여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였다. 특히 그동안 고인에게 지도를 받았던 수많은 동문들과 재학생들도 빈소를 찾았는데, 그 동안 고인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지도를 위해 애썼는지를 짐작케 하였다.

1월 19일에는 고인께서 장지로 떠나기 전, 환경대학원 주관 하에 영결식이 진행되었다. 고인의 사진들을 담은 영상과 제자들과의 모임에서 불렀던 노래 ‘아침이슬’의 육성이 흘러나와 영결식에 참석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약 200여 명 참석자 모두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영결식을 마치고, 고인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개인 연구실과 아꼈던 제자들의 연구실을 돌아본 후 장지로 떠났다.

영결식 당일, 환경대학원 성중상 원장의 추도문과 제자 대표 김승화 박사과정생의 추도문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고인을 기리게 하였다. 그 추도문을 우리 동문들에게 소개하며, 다시 한 번 고인의 영면을 기린다.



“최막중 교수님, 편히 쉬십시오”





존경하는 최막중 교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며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간에 갑작스럽게 생을 달리하시는 분이 주위에 없지는 않았지만,
평소 운동도 철저히 하시고 자기관리를 누구보다 잘 해 오셨던 최교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실 줄은 차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와 최교수님은 2003년 같은 해에 우리 대학원에 들어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가 두어 달 빠르긴 합니다만, 햇수로만 입사 동기인 셈이지요.
이후 지금까지 15년 넘게 함께 해 오는 사이에 둘 다 우리 대학원의 제일 막내에서
어느새 시니어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학과는 다르지만 저는 이런저런 일로
최교수님과 크고 작은 일을 함께 해 왔고 많은 생각을 나누어 왔습니다.
돌이켜 보자면 뜻이 잘 맞지 않았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달라 논쟁을 한 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최교수님의 마음속을 적지 않게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교수님은 탁월한 활동과 업적들을 거두셨습니다.
타고난 능력과 경험으로 웬만한 이들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성과를 거둔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세상적 성과나 평가보다도
최교수님의 마음결을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 왔습니다.

전공분야와 우리 대학원,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최교수님의 각별한 애정을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심하고,
더 나은 바를 향해 힘껏 애쓰며 추진하는 분,
어떤 일이든 최고를 위해 탁월한 생각과 열정으로 애쓰고
기어이 달성하는 분이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주목한 최교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좋은 생각과 뜻을 주변 동료, 지인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기를 강하게 원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언젠가부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과를 함께한 이들과 공유하면서, 그것이 옳았음을,
그리고 정말로 잘 한 것임을 서로 인정받고 나누기를 원했지요.

진실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옳고 바른 것인지 조차 흐릿해진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최교수님의 그런 덕목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적극적인 의지나 강한 추진력은
기실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최강’이라 평가했던 책임감도 그런 마음 바탕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면모가 있기 마련이며,
대체로 한 사람의 평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면모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가 누구보다도 참담하고 애통해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그런 마음결을 들여다 본 이후로 저는 진심으로 최고수님과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대화하고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꽤 많은 부분을 알고 이해하게 되어간다고 내심 기뻐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줄지에 이별을 당하게 되니 너무 아쉽고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사이별을 그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쉽기 짝이 없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최고수님을 편히 보내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남은 우리 모두,
당신의 뜻을 늘 기억하고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19년 1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성 중 상



영원한
스승님이신
사랑하는 교수님,

교수님께서 지난 26년간 저희에게 보여주신
학자로서의 길, 스승으로서의 길, 그리고 학문적 아버지로서의 길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따뜻하지만 때로는 엄격하게 격려해주시고 세심하게 이끌어주셔서,
저희 모든 제자들은 험난한 학문적 여정에서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기에,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교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놓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별써 교수님의 따뜻한 미소와 자상한 말씀이 그립습니다.
비록 교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학문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리의 길을 개척해나가셨던 선구자적인 교수님의 모습과
인생의 등대로서 저희에게 갈 길을 밝혀 주시고 행동의 귀감이 되어 주신
교수님의 모습은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늘 함께할 것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19년 1월

Macks Family 제자 일동 올림



故 최막중 교수께서는 1993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로 시작하여, 2003년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에 부임하고 2019년 1월 영면에 들기까지, 박사 53명, 석사 164명 등 수많은 제자들을 지도하였으며, 대내외 많은 활동을 통해 환경대학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이를 간략히 소개한다.

주요경력

○ 학위 및 학술

- 1979.03-1983.0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학사
- 1984.08-1986.08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1986.09-1993.03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1993.03-2003.02(10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2003.03- 2019.02(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2013.02-2017.0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 2014.03-2016.0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 국제활동 및 대외활동

- 2009~2019(10년) 아시아 도시계획 대학 협의회 집행위원
- 2009~2013(5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2014~2019(5년)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국제전문가위원
- 2015~2019(4년) 유엔 해비타트 3, 정책그룹전문가
- 2004~2008, 2014~2018(총 8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논문 및 저서

○ 논문: 서울대도시지역 지가구조변화의 통시적 분석 등 140편

○ 저서: 토지이용계획론, 도시개발론, 도시정책론 등 다수

후진양성 및 학문적 성과

- 26년간 한양대/서울대 총 박사 53명, 석사 164명 졸업
- 졸업생 중 현직교수 19명